

# ‘희망과 평화’ 담은 영화를 만나다

7~9일 빛가람 국제평화영화제  
10개국 20여 장·단편 무료 관람  
개막작 제외 CGV나주서 상영  
DJ노벨평화영화상 김동호 수상

다양한 나라의 장·단편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국제 영화제가 마련됐다. '2022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가 7일부터 9일까지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일원에서 열린다.



김동호 위원장

‘희망의 빛 함께하는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폐막작을 포함한 10개국 20여편의 장·단편 영화를 선보인다.

영화제를 여는 개막작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바딤 피얼만 우크라이나 영화감독의 ‘페르시아어 수업’ (7일 오후 7시 30분 한정 KDN)이다. 페르시아어를 배우는 독일군 장교와 살기 위해 페르시아어를 가르치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국내 미개봉작으로 오는 15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다.

또 다른 상영작으로는 영국 출신 감독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브레이크’가 상영된다. 평생을 성실한 목수로 살던 다니엘은 심장병 악화로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돼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지만 번번히 실패한다. 그러던 중 두 아이와 함께 런던에서 이주한 케이트를 만나 서로 의지하게 되는 내용이다. 켄 로치의 또 다른 작품 1920년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도 볼 수 있다.



개막작 ‘페르시아어 수업’

폐막작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탄소 중립 실천으로 지구를 구하자는 의미를 담아 세계적인 기후 행동의 아이콘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정의의 위를 떠나는 여정을 소개하는 나탄 그로스만 감독의 다큐 ‘그레타 툰베리’를 선보인다.

개막작을 제외한 모든 영화는 CGV나주에서 상영되며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차례에 걸쳐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영화제에서는 제 10회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 수상식도 진행된다.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은 문화예술분야를 집중 육성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해 인류의 평화공존, 인권신장에 기여한 작품이나 감독,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 본상 수상자로는 부산국제영화제 탄생과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이 선정됐다. 김 전 위원장은 제 23대 문화부 차관을 거쳐 2010년

에는 부산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명예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3년에는 영화 ‘주리’ 감독을, 2010년에는 영화 ‘카멜리아’ 프로듀서를 맡았다.

특별상에는 이란 배우 타라네 알리두스티와 헝가리 가수 가자니가 선정됐다. 타라네 알리두스티는 본인 SNS에 하잡을 벗은 모습을 공개하고 ‘여성, 생명, 자유’가 적힌 종이를 들고 반 정부 시위 연대를 표했다. 또 이란 ‘파르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2번 수상한 배우 가자니는 하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나올 만에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에게 연대하는 의미를 담아 지난 19일 하잡을 쓰지 않고 긴 생머리를 뒤로 묶는 영상을 올렸다.

영화제는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010-4069-1888.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 ‘엄마의 우울증 해소’ 위한 형제 분투기

안오일 동화작가 장편동화 ‘우주통신 까막별호’ 펴내



“여러분도 아시죠?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한 비밀 번호는 바로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의 손길이라는 걸요.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누었을 때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요.”

안오일 동화작가 장편동화 ‘우주통신 까막별호’ (책내용)을 펴냈다.

동화는 엄마의 우울증 극복을 위해 좌충우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가 이번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언젠가 길거리에서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고 있는 차를 보면서였다. 작가는 만약 앞차가 비상등을 켜지 않았다면 상황을 알지 못하는 뒤차들이 뺨뺨거리거나 험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마치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은 생각에서 작품을 구상했다.

작가는 정도와 증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깨닫지 못하고 안으로 담아 두는 경우가 많다.

작품은 엄마의 우울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두

형제가 별이는 분투기다. 서툴지만 자신을 위해 애를 쓰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보면서 엄마는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한다. 작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깜박깜박 신호를 주는 자동차처럼 마음이 아플 땐 애는 누구에게라도 아프다고 말해 주면 좋겠어요. 그 아픔을 말하지 않으면 지켜보는 사람도 같이 아프게 되지만 아픔을 얘기하고 나누면 나아갈 길을 함께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라고 말한다.

한편 안 작가는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전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푸른문학상, 한국안데르센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화책 ‘울창이 아빠’, ‘천하무적 왕눈이’, ‘이대리가 아닌 이대로’, ‘오라차차 길고양이 나가신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글쓰기·철학·음악·영화 ‘인문학 강좌’

광주시민인문학 이달말까지...가을 산행 트레킹 진행

실천 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97기 정기강좌를 마쳤다.

이번 강좌는 글쓰기, 철학, 음악, 영화 등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펼쳐진다. 장소는 전남대 정문앞 카페 노블(광주시 북구 자미로 66번길 7, 2층).

먼저 월요일과 화요일(오후 7시)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이다. 명혜영 교수가 ‘아니 에르노 ‘한 여자’부터’를 주제로 강의와 글쓰기를 진행한다.

수요일 오후 3시에는 위상복 전남대 명예교수가 ‘팍스 자본론-정치경제학 비판’을 수강생들과 강독한다.

목요일(오후 7시)은 신우진 광주시민인문학 이사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음악’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과 이야기를 한다.

금요일과 토요일(오후 7시)은 독립영화와 인문 실험을 매개로 강연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진정한 씨와 명혜영 교수는 ‘영화로 인문학하다’를 이야기하며, 신광용 책임연구원 외 강사들은 ‘세대 공감 시셋말’에 대해 강연과 이야기를 한다.

일요일은 ‘인문학’ 시간으로 ‘가을 산행 트레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은 기수별, 강좌별 등록이며 강좌는 전화(010-4624-1201) 신청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조선 성리학 대가 ‘노사 기정진’ 학문 계승

광주·전남발전협의회, 내일 광주향교서 학술 세미나

조선 성리학의 대가로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노사 기정진의 학문을 계승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기정진의 학문 세계와 함께 그의 3대 제자 노사학파의 거장이라 불리는 대곡 김석귀, 노백현 정재규, 일신재 정의림의 사상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다.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2일 오전 9시30분 광주향교유리회관 대강당에서 ‘노문삼자의 노사학 계승과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열린 ‘노사 기정진의 학문과 사상 계승을 위한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최영관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

미나에서는 김봉곤 노사학 연구위원장의 ‘대곡 김석귀의 성인지향론과 노사학 정립’, 전병철 경성대 한문학과 교수의 ‘관선계강약을 통해 본 노백현 정재규의 강학 운영 방침’, 조우진 전남대 학술연구 교수의 ‘정의림의 역할과 위상’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형성 전남대 학술연구 교수, 함영대 경성대 한문학과 교수, 정영수 조선대 학술연구 교수 등이 참여한다.

19세기 호남 유학의 마지막 거장으로 평가 받는 노사 기정진(1798-1879)은 위정척사 사상을 가장 먼저 주장한 실천가이자 공리공담의 성리학을 독보적인 학문세계로 개척한 탁월한 성리학자였다. 특히 수많은 제자를 양성해 배출된 걸출한 문인들이 ‘노사학파’라는 지적공동체를 이뤘다. 노



전병철 교수



김봉곤 연구위원

사학파는 근·현대 호남 지식사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탐구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82년 창립한 광주·전남발전위원회는 무등미술대전 개최, 장학금 지급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 지금까지 ‘광주 향약·발전과 공동체 의식’, ‘한국 개화사상과 선각자들’, ‘부용정 향약과 민족정신’ 등 남도 정신의 근간을 찾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김미은 기자 mekim@

# 10년간 판매 1위,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교보문고, 2위 김용택 필사 시집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에서 지난 10년간 독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집은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로 나타났다.

29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최근 10년간(기준일 2012년 11월 28일-2022년 11월 27일) 시집 판매 순위를 조사한 결과 ‘꽃을 보듯 너를 본다’가 1위에 올랐다.

이 시집은 시인이 대표작 ‘꽃향’과 인터넷에서 자주 인용된 작품을 선정해 2015년 출간한 책이다. 뒤를 이어 김용택의 필사 시집 ‘아저씨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가 2위, 나태주의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가 3위, 박준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가 4위, 류시화의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 5위를 차지했다.

작가별로는 나태주 시인이 판매 순위 상위 30권에 작품 6편을 올렸으며 다음으로 윤동주 시인의 작품 4편이 올랐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